

춤패 허경미의 *Red Step* 붉은 걸음

진주 -  
-걸음-

# -걸음-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내딛어 걸어 걸어가고 있다.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길.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연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바램과 좌절, 사랑과 희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롯이 마주하며

묵묵히 때로는 치열하게

온몸으로 꿰뚫고 걸어가는 것은 곧 진화이다.

당신이 지금도 걷고 있는

진화 속 퇴보의 길, 퇴보 속 진화의 길.

다른 이들과 별다를 것 없는,

그래서 더욱더 사무치는 이 길.

당신이 내 딛는 걸음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당신의 몸에 새기며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계십니까?

## 안무의도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우리는

뒤돌아 갈 수도 서둘러 앞질러 갈 수도 없다.

주어진 현재를 묵묵히 때로는 치열하게

온몸으로 오롯이 마주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이며 곧 진화일 것이다.

이런 진화의 과정은 우리별의 자전 · 공전의 운동과 같은

삶의 작은 반복적 변화들 속에서 일어나는 긴 생

혹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변화과정의 반복 운동이다.

이 작품은 우리의 삶을 진화의 과정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삶을 끝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화는 인간의 생을 이해하는 불교적 해석을

작품으로 또 다르게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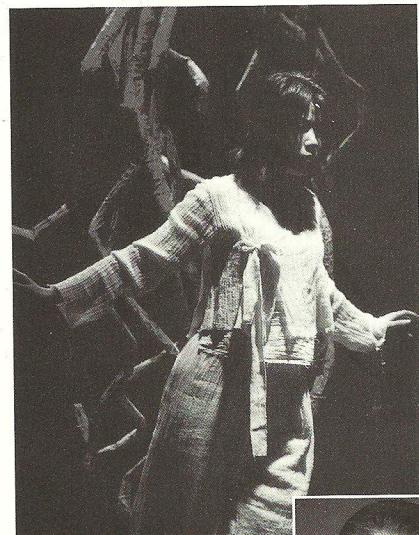


## 허 경 미

- Red Step 대표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미학전공 박사과정
- 통영승전무·창작탈춤페〈지기금지〉회원
- 경성대학교 출강

### 안무작

- 지하철, 공무도하가, 눈물, 꽃 I, 꽃 II, 네여자이야기, 길, 진화



## 김 추 자

- 민족미학연구소 기획실장
- 경성대 문화기획 행정이론 박사과정
- 부산대학교 출강



## Red step 붉은 걸음

님을 향한 뜨거운 기슴

붉디붉은 꽃을 바쳐 서투르게 고하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선명한 걸음에 몸짓실어  
사모하는 내 님들에게 붉디붉은 마음 바칩니다.

## 우리 앞에

시간이 놓여있다.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기에 앞서 이미 시간으로 있어왔다. 사람들이 그 시간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잘라 붙여 뜻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그 시간의 길 위에서 있거나 뛰거나 또는 걷고 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세상을 만난다. 차창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저 뒤로 사라질 뿐이다. 지하철을 타고 만나는 차창 밖 세상은 없다. 우리는 가역에서 나역으로 좌표이동할 뿐이다. 길 위를 '걸어

서 가는' 우리들은 머리 들어 지나가는 구름을 바

라볼 수도 있고, 길옆에 앉아있는 들꽃에 잠깐 한

눈 팔 수도 있다. 땅바닥에 떨어진 빛나고 값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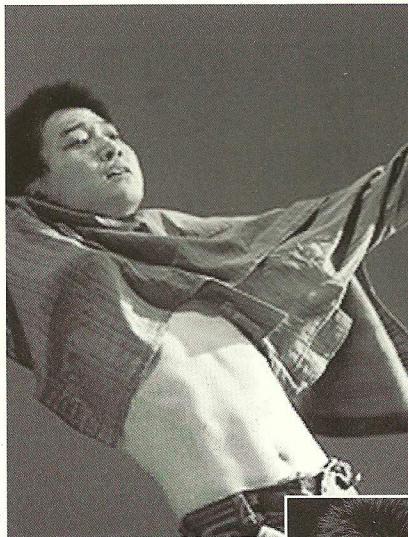
언가를 주으려 잠시 멈춰 앉았다 갈 수도 있다. 나

를 부르는 귀에 익은 목소리 있어 소금기등이 될지언정 뒤틀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깜박 잊고 온 것이 있어 온 길을 되짚어 갈 수도 있다. 시간의 길을 타는 차림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난다.

춤꾼들이 펼쳐놓는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한 공간에서 만난다. 춤꾼들의 시간이 우리를 앞서가기도 하고, 그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기도 하고, 그들의 시간이 뒤태를 보여주며 우리들을 따라오라 살랑살랑 몸짓하기도 하고, 그들과 우리들의 시간이 맞부딪친 김에 퍼질고 앉아 한판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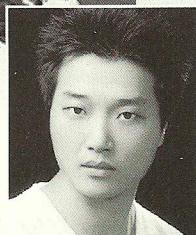
자! 이제 우리는 이러저러한 시간의 길 위 어딘가에 우리들 존재의 집을 지을 것인가.

신용철 (인제대 인문학부 교수)



박 광 호

- KBS콩쿨 대상
- 부산시립무용단 비상임



신 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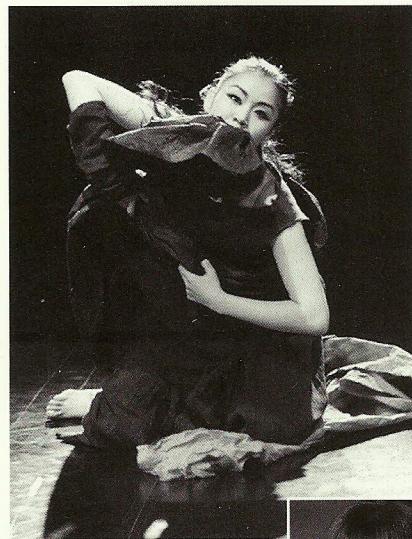
- 경성대학교 무용교육학 석사
- 문화예술교육강사





현선화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석사과정
- 창원시립무용단



조은미

- 전 제주도립무용단



그리고… 김영찬

## Staff

- 안무 · 연출 : 허경미
- 무대미술 : 이상헌
- 무대감독 : 김윤규
- 음악 녹음 및 편집 : 최두진
- 음향 : 이창훈
- 의상 : 안정숙
- 조명 : 이동진
- 사진 : 이장수, 이호영
- 촬영 : 신준영, 한영석

공연을 축하합니다

[www.ktrmall.com](http://www.ktrmall.com)

바늘에서 비행기까지!  
소유가 아닌 공유!!

한국종합렌탈(주)



2008. 10. 19(일) 하오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주관 : 춤패 허경미의 *Red Step* 붉은 걸음

후원 : (사) 民族美學研究所 R 한국종합렌탈(주)

문의 : 010-9210-1595, 018-568-6785